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7월 1일(목) 총 1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 기획팀장 양상훈 ☎440-2131 • 담당자 서정목 ☎440-213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 “2030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새로운 인천으로 재도약”**  
**- 인천독립 40년 · 민선 7기 3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  
**- 2030 중장기 비전(2030 미래이음) 을 통해 4대 미래상 · 6대 미래 발전축 제시 -**

박남춘 인천시장은 7월 1일, 인천독립 40년과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인천의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선7기의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시장은 “지난 40년간 인천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성장을 거두었지만, 경제구조의 한계, 악화된 환경 등 성장의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지난 민선 7기 3년은 인천형 뉴딜, 환경특별시 정책 등을 통해 누적되어온 인천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시간이었다.” 라고 회고 했다.

박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9년에 발표한 인천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인천 2030 미래비전」을 보완 · 발전시킨 2021년판 「인천 2030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박시장은 2030년에 인천은 미래 10년 동안 경제

구조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모두 이룬 도시가 되고,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제2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포부를 밝혔다.

박시장은 2030년 인천의 4대 미래상으로 ▲환경특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경제 구조 고도화에 성공한 도시, ▲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신뢰와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를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는 “미래 인천 6대 발전축” 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미래 인천 6대 발전축” 은 ▲DNA(Data-Network-AI)혁신 밸리(송도-주안·도화-계양테크노밸리), ▲바이오헬스밸리(송도-남동공단), ▲항공·모빌리티밸리(옹진-영종-청라) 등 3개의 미래첨단산업축과 ▲문화역사재생축(연안부두-개항장-동인천-송림·도화 등 원도심-캠프마켓), ▲해양생태복원축(조성 예정인 해양친수공간을 연결) 등 2개의 도시환경 축, 그리고 ▲서해협력평화축(해주·개성-인천-평택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구조 대전환과 도시환경 개선에 집중해 ‘살고싶은 도시’ 를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박시장은 10대 분야별 비전과 주요 전략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핵심정책을 발표했다.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17개의 핵심정책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추가 · 보완하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박시장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조한 부분은 역시 환경 분야였다.

박시장은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형 폐기물 처리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상징이자 구시대의 유산” 이라면서 “G7과 어깨

를 나란히 할 만큼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이 공간을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 미래 환경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환경연구 및 스타트업 육성 단지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했다.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의지를 명확히했다. “인천의 에너지 자립도는 247%로 인천시민이 쓰는 것보다 2.5배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발전분야가 인천 전체 탄소배출량의 54%를 차지한다” 면서 “인천이 가장 탄소중립이 어려운 도시지만 곳곳이 나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수소·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2030년까지 약 36%), 수소버스 등 무공해 교통수단 확충, 녹지·갯벌·하천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그리고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등을 통해 204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80% 이상을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자체 노력과 명분을 통해 영흥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도 관철시킨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일자리·경제분야에서 박시장은 “첨단산업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 며 “지역별로 핵심첨단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지역 간 밸류체인을 연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박시장은 이날 제시한 미래인천 6대 발전축과 함께 ▲지역별 첨단산업 육성전략, ▲노후산단 대개조 계획, ▲미래산업 중심의 인천자유구역 발전방안 등 3가지의 핵심정책을 제시하면서 첨단산업 도시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 산업의 공정한 전환에도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미 가시적 성과가 드러난 바이오 산업 외에도 항공정비, 미래모빌리티, 메타버스 등 콘텐츠 산업, 수소산업 등을 인천의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과 경제 분야 외 8개 분야에 있어서도 비전과 구체적 전략, 그리고 핵심정책들이 소개되었다.

주택분야에서는 “살만하고(liveable) 살만한(affordable) 주택공급”을 통해 인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검단신도시 등 4개 신도심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인천형 우리집 등 공공임대주택 6만4천호를 추가 공급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외에도 임차보증, 주택개조 등 시민이 체감하는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항부터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등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인천의 문화역사 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날 박시장은 캠프마켓의 역사문화공원화 계획, 연안부두-개항장-주안·도화동-캠프마켓 등을 잇는 문화역사재생축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과거와 미래, 보존과 활용이 공존하는 인천의 주요 도시재생프로젝트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선진화된 수돗물 공급체계”가 핵심정책으로 소개됐다. 박시장은 과거의 실수들을 반면교사로 쇄신에 쇄신을 거듭

했다면서 오는 8월 ISO22000 국제 인증을 받아 생산설비의 위생수준을 식품공장 수준으로 높이고, 2029년까지 전국최초로 통합급수체계를 통해 수계전환 없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통과 해양·항만 분야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의 매력을 시민들에게서 만끽할 수 있도록 해양친수공간을 확대하고, 송도에서 검단까지 연결하고 원도심을 통과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신설하여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구축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GTX-D는 차기 대선 등을 기회로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인천시민의 교통향유권을 극대화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2순환고속도로, (가칭) 제4경인고속도로 추진, 도심 내 혼잡도를 낮추고 도시 내 단절을 극복을 위한 인천대로 일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시장은 보건 분야와 관련해 “내년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밟아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영종에 국립대병원 분원을 반드시 유치하여 인천의 지역의료체계 강화와 영종의료여건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송도세브란스병원, 청라의료복합단지 등 지역 내 고난이도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더 이상 시민들이 병원 때문에 서울로 가지 않고, 오히려 경기 인근지역에서 인천의 병원을 찾는 의료허브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박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2030년 비전 실현을 위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표가 나는 일보다는 해야 할 때에 할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다” 면서 특유의 진솔함과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박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특히 경제와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초를 쌓겠다” 고 밝혔다.

<붙임> 2030 인천미래이음 분야별 비전-추진과제-핵심정책

<별첨> 발표자료(인천독립 40년, 민선7기의 역할과 과제)

※ 관련 사진은 15:30분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 [only.webhard.co.kr](http://only.webhard.co.kr) )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참고1

## 2030 인천미래이음 분야별 비전-추진과제-핵심정책

분야별 비전	추진과제	분야별 핵심정책
<1> 환경특별시 인천 (환경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자원순환의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li> <li>▶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생산체계 혁신</li> <li>▶ 탄소흡수원 대폭 확충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li> <li>▶ 해양·갯벌·하천 생태계의 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권역별 복합 환경문화센터 건립</li> <li>②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 검토</li> <li>③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실현</li> </ul>
<2> 첨단 산업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일자리·경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첨단산업의 육성과 연계</li> <li>▶ 노후산단 대개조로 제조업의 공정한 전환 지원</li> <li>▶ 청년과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li> <li>▶ 두터운 일자리 안전망과 어르신 재교육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지역별 첨단산업 육성 전략</li> <li>⑤ 노후산단 대개조</li> <li>⑥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li> </ul>
<3> 집 걱정 없고 도시 환경이 아름다운 도시 (도시·주택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살맛나는 인천형 주거복지</li> <li>▶ 곳곳이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li> <li>▶ 역사자원을 미래 먹거리와 즐길거리로</li> <li>▶ 공동체와 동네경제를 모두 살리는 도시재생과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살고싶고 살만한 주택 공급</li> <li>⑧ 캠프마켓 역사문화공원화</li> <li>⑨ 문화역사재건축 교통망 확충 및 활성화</li> </ul>
<4> 바다와 하늘을 더 잘 활용하는 도시 (해양·항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항을 첨단물류·해양관광 거점으로 탈바꿈</li> <li>▶ 시민이 보고 즐기는 인천앞바다</li> <li>▶ 날로 살기 좋아지는 도서지역</li> <li>▶ 항공교통산업 선도도시로 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해양친수공간 확대계획 (2030 인천 바다이음)</li> </ul>
<5>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 (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안 철도교통의 중심 인천(GTX-B, GTX-D 등)</li> <li>▶ 촘촘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li> <li>▶ 편리한 대중교통과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구축</li> <li>▶ 친환경 교통체계 도입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⑪ 인천중심 철도망 구축</li> <li>⑫ 인천 도로순환체계 확립</li> </ul>
<6> 문화와 역사를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도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필요 문화시설 대폭 확충 및 앵커시설 조성</li> <li>▶ 보존과 활용이 조화되는 역사자산의 가치 재발견</li> <li>▶ 미래 콘텐츠 관광의 메카로 도약</li> <li>▶ 공동체 자원을 공유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⑬ 주민과 주민을 잇는 문화·관광·시설 확충</li> <li>⑭ 스마트·XR관광 선도도시 육성</li> </ul>
<7> 회복력이 강한 안전한 도시 (안전·상수도· 소방·경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스마트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li> <li>▶ 산단 노후주택 등 취약지역 화재예방대응 체계 강화</li> <li>▶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급수혁신체계 마련</li> <li>▶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공동체와 자치경찰의 역량집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⑮ 가장 선진화된 수돗물 공급체계 확충</li> </ul>
<8>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포용도시 (복지·가족· 건강·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복지 기준선 확행 등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li> <li>▶ 세대별 행복 지원 정책 강화</li> <li>▶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li> <li>▶ 고난이도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유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⑯ 지역의 총체적 의료역량 강화</li> <li>⑰ 인천 복지기준선 지속 발전</li> </ul>
<9> 시민 맞춤 행정을 실현하는 지능형 정부 (행정·재정·소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형 ‘지능형 정부’ 구현</li> <li>▶ 디지털 포용사회(digital inclusive society) 구현</li> <li>▶ 시민이 주인되는 협치 거버넌스 및 플랫폼 활성화</li> <li>▶ 재정건전성과 적극재정이 조화되는 재정 운영</li> </ul>	
<10> 평화와 글로벌 이슈 해결을 선도하는 도시 (남북국제협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장을 완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형 남북교류</li> <li>▶ 글로벌 이슈 도시 간 공동이슈 해결에 앞장서는 인천</li> </ul>	

※ 상기 과제와 정책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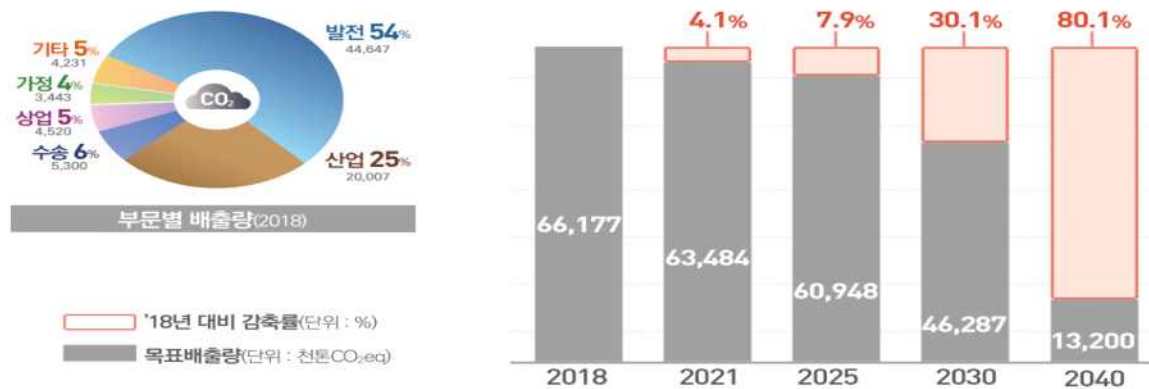
## 참고2

## 분야별 주요 핵심과제 소개

### □ (환경)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실현

#### 핵심 정책 03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실현 1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 □ (경제) 지역별 첨단산업 육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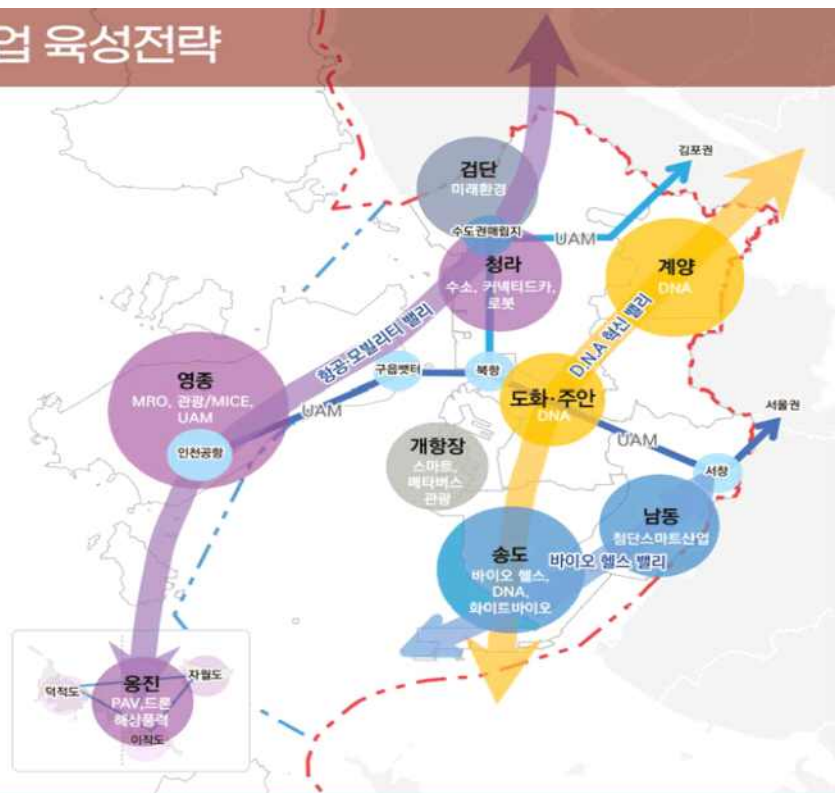
#### 핵심 정책 04 지역별 첨단산업 육성전략

##### 원도심-신도시를 연계하는 혁신 벨트 조성

- DNA 혁신 벨리: 송도 - 제물포 - 계양
- 바이오 헬스 벨리: 송도 - 남동산단
- 항공-모빌리티 벨리: 용진 - 영종 - 서구

##### 지역별 미래 유망 첨단산업 육성

- 송도: 바이오 헬스, DNA, 화이트바이오
- 청라: 수소발전, 커넥티드카, 로봇
- 검단: 미래환경
- 영종: MRO, 관광/MICE, UAM
- 계양: DNA
- 개항장: 스마트관광, 메타버스 관광
- 용진: PAV(특별자유화구역), 드론, 해상풍력
- 도화·주안: DNA





☐ (경제) 노후산단 대개조

## 핵심정책 05 노후산단 대개조(~'26)

2026년까지, 사업비 약 1조원 투입

산단 문화공간 대개조(~23) • 위치: 남동산단 / 사업비: 5억4천만 원

• CultureSpace

**'낮에는 비즈니스공간,  
밤에는 산업문화공간으로'**

업무시간에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사용되고 밤시간에 활용 밤에는 근로자와 시민의 문화공간

■ 산업문화공간 조성 목표

<p><b>산업문화 활동용 위한 장소 조성</b></p> <p>근로자와 시민의 참여를 위한 문화행사, 공연을 위한 다목적용 장소(연습장)</p>	<p><b>근로자와 시민의 대인교반의 역할</b></p> <p>단일 건축, 비좁은 공간, 열악한 환경, 특정한 특성이 매우함</p>	<p><b>산업문화활동의 조직을 통한 토광활동으로 이미지 변화</b></p> <p>산단문화활동용 공간 ~후 2020년까지, 문화재단의 건적으로 변화</p>
--	---	--

**스마트 그린산단(~'23)** • 위치: 남동산단 / • 사업비: 5,760억 원(국2,693,시2,914)

**남동스마트그린산단 변화 모습 (미래상)**

**산단 대개조 (~'23)** • 위치: 남동-주안-부평산단 / 사업비: 4,736억 원(국2,999, 시1798)

Before	인천 산업단지 대개조	After
소재: 부품, 전자 산업		신원제·원양사·도·에이치비스·시메스 사업
부위: 산업		리베라제·전기차·에이치비스·차량 부품 사업
배치: 반도체, 전자 산업		에이치비스·원양사·소재·신원제·기타·전자 산업
인천경제자유구역법, 소하비(사)		소재·신원제·리베라·차량·부품·전자·전자 산업

**산단 재생('26)**

• 위치: 남동 주간 부평산단 / • 사업비: 349억 원(국174, 시174)

**남동공단 도시재생 조성**

- 동산과 공장을 구분하고 경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사업단위 이니셔티브 구축
- 1차산업 및 농특산물
- 1차산업 장비

**남동근로자를 위한 치유농장 조성**

- 면적: 11,600㎡ (120㎡~200㎡)
- 투자액: 349억 (1차산업 조성에만 300억)
- 1차산업 장비 및 농특산물

**남동공단 도로환경 개선**

- 기존 도로를 통한 지역사회의 접근 및 편의성 증대
- 1차산업 장비
- 1차산업 장비
- 1차산업 장비

**농촌마을 인근 농촌환경 조성**

- 농촌마을 일대용 농촌지정 및 농촌마을 조성
- 1차산업 장비 및 농특산물

## □ (도시·주택) 문화역사재생축 교통망 확충 및 활성화

**핵심 정책** 09 **문화역사재생축 교통망 확충 및 활성화(~'29)**

역사산책공간

인천새관역사공원

스마트관광도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신포지하공공보도

상상 플랫폼

내항재생

스마트오도밸리

연안부두

석탄부두

개항창조도시

송림삼거리

동인천

인천일반 산업단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인천기계 산업단지

제3보급단

캠프 마켓

부평

문화역사재생축

부평캠프마켓

제3보급단

도화구역 개발

## □ (문화 · 관광 · 체육) 주민과 주민을 잇는 문화앵커시설 확충

### 핵심정책 문화 13 주민과 주민을 잇는 문화시설 확충

#### 주민을 잇는 문화허브 확충

주민간 지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재주를 나누는 생활 속 문화공간 조성



#### 문화 앵커시설 조성



연수구 | 국립세계문자박물관(23.)



충주 | 국립인천해양박물관(24.)



미추홀구 | 인천뮤지엄파크(25.)



서구 | 경단신도시박물관 및 인천도서관(26.)

## □ (안전 · 상수도 · 소방 · 경찰) 가장 선진화된 수돗물 공급체계 확충

### 핵심정책 상수도 15 가장 선진화된 수돗물 공급체계 확충

#### 인천형 '워터케어' 추진('20.8.~)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수도물 수질검사 및 육안배관 진단 서비스 제공,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공급



#### ISO 22000 도입('21.8.)

정수장에 식품공장 수준의 국제표준규격  
ISO22000을 도입하여 깨끗한 물 공급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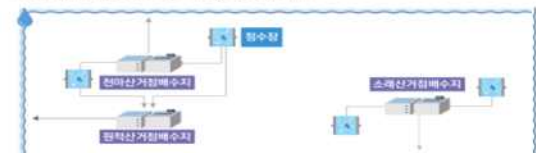
####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도입('22.4.)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ICT기술을 도입해 수질, 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수질사고 사전 예방



#### 전국 최초 통합급수체계 마련('29.)

기존 정수장과 연결되는 거점배수지(3곳) 조성  
→ 수도물 품질 보장 및 수계전환 없는 안정적인 물 공급  
※ 총사업비 : 3,300억원, 관망연장 32.5km



## □ (복지 · 가족 · 건강 · 교육) 지역의 총체적 의료역량 강화

### 핵심 정책 16 지역의 총체적 의료역량 강화

☑ 감염병 전문병원

☑ 제2의료원

☑ 영종공공종합병원

☑ 청라의료복합단지(~'29)



☑ 송도세브란스병원(~'26)





### 참고3

### 미래 인천 6대 발전축

맺으며

## 2030 미래도시 축과 인천의 미래상

2030년 인천은?

환경특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경제구조 고도화에 성공한 도시

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신뢰와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

